



## 세계화의 신학, 신학의 세계화, 그리고 교회

문시영(남서울대)

### ▶ 특집호 - 세계화 ◀

문시영(남서울대) 세계화의 신학, 신학의 세계화, 그리고 교회

최윤배(장신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죽음과 노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1. 들어가는 말

‘Globalization’, ‘Localization’, 그리고 ‘Glocalization’으로 이어지는 논의과정에서, 과연 신학은 제 몫을 온전히 수행했는가? 지나치게 세계화를 ‘문제시’하거나 ‘부정론’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고전 급(級) 이슈가 되어버렸고, 세계화현상에 대한 긍정 내지는 절충을 말하려는 관점들에 대한 시선은 무척이나 싸늘하다.

만일, 세계화가 오늘날 문제들의 원죄 썸 되는 위험요소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세계화가 삶의 매트릭스로 자리 잡은 정황에서, 반대와 거부가 능사일까 싶기도 하다. 오히려, 세계화

에 대해 균형 잡힌 신학적 성찰이 필요할 듯싶다. 이 글에서 스택하우스(Max Stackhouse)의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 주목하는 것은 세계화를 신학의 주제로 삼고 '교회'의 사명을 재론하려는 취지이다.

## II. 세계화시대의 신학과 교회

### 1. 세계화의 신학

'세계화의 신학'(Theology of Globalization)이라는 표현은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기초한 것으로서, 세계화에 대한 통진적 의미의 신학적 성찰이 필요함을 일깨워 준다. 세계화 문제에 공공신학을 대입시키는 것은 스택하우스 고유의 문제의식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신앙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를 극복하고 공적 신앙(public faith)을 구현할 것을 강조하면서, 스택하우스는 '공공신학'을 통하여 글로벌시대의 기독교사회윤리를 전개한다.<sup>1)</sup>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카이퍼의 영역주권론과 니버의 사회윤리라고 하는 두 기둥에 의해 열개를 갖추어 기독교신앙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데로 나아간다. 여기에는 신앙의 사사화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공공성 구현을 통해 공적 신앙의 본질을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이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사회윤리와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을 바탕으로 삼아, 바른 에토스(ethos)의 회복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글로벌' 정황에 대한 인식과 글로벌 시민사회에서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관심이다. 스택하우스의 공공

신학이 글로벌 정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글로벌'이 삶의 매트릭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공공성의 성찰이 긴요하게 요청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공신학이 시민사회를 향한 변증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연결지어 설명되어야 한다. 현대의 사회과학자들 및 시민사회의 담론에서 기독교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 반향으로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서구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형성에 신학이 중요한 기여를 해왔음을 변증하고 시민사회의 문제들에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것은 공공신학이 지닌 변증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기독교로 하여금 공적 신앙의 중요성을 회복하도록 일깨워준다.

스택하우스가 보기에, 현대사회와 현대인은 마치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다. 이것은 실로 중대한 오류이다. 스택하우스가 보기에, 이러한 오류는 분리현상을 낳는다. 신학을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공동의 삶의 제도들에 내재된 의미와 도덕성을 박탈하고 만다.<sup>2)</sup> 특히 시민사회가 신학이야말로 공공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문화와 역사를 변혁시켰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신학을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날의 사회과학들은 신학과 윤리로부터 배울 수 있고 사실 배워야 한다. 그리고 신학 및 윤리와 무관하게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일관성이 없거나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 양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만약 이들의 연결이 끊어지면, 결과는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 모두의 깊이와 넓이를 왜

1) 공공신학에는 여러 관점이 있다. 영미권의 공공신학과 유럽의 공공신학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들 중에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대한 개괄은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북코리아, 2007). 이 책에는 2007년에 초청된 스택하우스 박사의 추천사와 강연문을 비롯하여 공공신학을 개괄하는 국내 신학자들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2) Max L. Stackhouse, *Globalization and Grace*. 이상훈 역, 『세계화와 은총: 글로벌 시대의 공공신학』(북코리아, 2013), 82. 이후 각주에서는 『세계화와 은총』으로 약칭한다.

곡하게 된다.<sup>3)</sup>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택하우스는 글로벌 맥락 혹은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신학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공신학의 역할을 일종의 ‘인공두뇌 역학’(cybernetic dynamics)에 비유한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신학은 문명을 비롯한 고(高)에너지 시스템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 해당하는 저(低)에너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능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sup>4)</sup> 말하자면, 신학은 삶의 모든 지평에서 필수적이다.

이 대목에서, 공공신학에 대한 스택하우스 자신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공공신학은 로마사회에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시민종교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신학은 시민종교의 지평을 넘어선다. 사회적 삶에서 종교의 역동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며, 그 역동성의 과연 어떤 특질이 유효하고 정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감정(鑑定)해주는 것이라는 의미이다.<sup>5)</sup>

현대사회의 특징이라 할 세계화 문제와 연관지어 설명해보자. 스택하우스가 ‘세계화’에 관심하는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해주는 부분이 있다. 공공신학이 관심해야 할 이슈는 세계화 문제이다.<sup>6)</sup> 세계화 속에서의 종교, 윤리 그리고 신학의 자리매김을 성찰하되, 하나님께서 세계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허락 혹은 관여하는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대기독교윤리학이 다루어야 할 최대의 과제가 세계화의 문제라는 주장인 동시에, 기독교윤리가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준 셈이다.

3) 윌클, 66.  
4) 윌클, 137.  
5) 윌클, 151.  
6) 윌클, 29.

‘공공신학’이야말로 잠재적 역량으로 미루어 볼 때, 세계화가 제기하는 쟁점들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이다.<sup>7)</sup>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에 대한 평가를 두고 스택하우스가 강조하는 것은 ‘균형’이다. 세계화는 경제 영역을 비롯한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인류에게 약속과 동시에 위협을 말해준다. 세계화 문제를 일방적으로 찬성하거나 거부하기보다 그 현상과 흐름 속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김리카의 요약에서처럼, 기독교 안에 세계화에 대한 관점은 크게 비판론과 낙관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비판론에서는 세계화를 ‘또 다른 타락’(another Fall)으로 간주하여 기독교가 저항하고 극복해내야 할 도전으로 간주한다. 이와는 달리, 낙관론에서는 세계화를 ‘섭리적 은혜’(providential grace)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널리 전할 기회로 간주한다.<sup>8)</sup> 스택하우스의 관점은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달려있다. 세계화에 대한 이해에서 ‘또 다른 타락’이라고 말하는 관점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섭리적 은혜를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sup>9)</sup>

다시 말해, 긍정의 요소와 부정의 요소 모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기독교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성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스택하우스가 보기에, 세계화에는 명암이 있다. 그리고 긍정적 요소까지도 덮어놓고 위협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세계화는 사람들 사이의 오래된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예상하지 않

7) 윌클, 133.  
8) Will Kymlicka, "Introduction: The Globalization of Ethics", William M. Sullivan and Will Kymlicka, eds, *The Globalization of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1-12.  
9) Max L. Stackhouse, "Globalization and Christian Ethics", William M. Sullivan and Will Kymlicka, eds, *The Globalization of Ethics*, 73.

은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그러한 발전의 또 하나의 물결로, 과거의 폐쇄된 국가 체계의 대체와 새로운 종교적 문화적 종합뿐만 아니라 정보제트기와 인터넷에 이르는 소통, 새로운 양식의 유전공학 및 도시 생태공학 등의 과학기술에 의해서도 특징지어지는 혁명적인 시기이다.<sup>10)</sup>

하지만, 세계화에는 부정적 요소가 내재해 있다. 스택하우스의 표현처럼, 세계화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거나 '새 예루살렘'인 것은 아니다. 세계화에 수반되는 그늘이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는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세계화를 '또 다른 타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이라 할 수 없다. 객관적인 해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에토스의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신학이 관심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택하우스의 관점은 세계화에 대한 찬성일변도의 접근이 아니다. 스택하우스가 세계화 문제를 신학적으로 성찰한 것 자체를 두고 그의 신학이 세계화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이제까지의 신학적 접근이 세계화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온 경향을 보여준 것에 대해 스택하우스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세계화에 대한 찬성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옳지 않다.

말하자면, '공공신학 = 세계화 옹호'이라는 도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택하우스의 관점은 세계화 문제 그 자체에 대해 균형형을 강조한다. 나아가, 스택하우스의 관점이 세계화 찬성론인가 혹은 지나친 낙관론인가를 문제삼는 것보다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이 있다. 세계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스택하우스가 보기에, 세계화에 성찰에서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세계

10) 윌클, 54.

화에 대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기독교의 영향력을 무시한 채 경제적 관점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가 인간사회와 세계화 속에 실제적인 신앙의 힘과 영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스택하우스가 공공신학으로서의 기독교윤리의 필요성에 착안한 지점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뜻에서, 세계화의 신학에 관해 요약하라고 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간추리는 것으로 그 내용을 대신할 수 있겠다.

- 피조물과 모든 것은 왜곡되고 무너졌지만, 창조된 세계는 선하다.
-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 그리고 인간과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궁극적 목적들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
- 그리스도인은 역사해석에서 죄의 반복이라는 '타락'의 관점 및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새 아담, 예언자, 제사장 및 왕의 직분으로 구원의 언약을 갱신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음을 인식해야 한다.
- 세계화가 오류, 파괴 및 죄악을 수반하는 측면도 있지만, 선하시고 복원하시며 변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서, 하늘 도성에 대한 비전이 요청된다.
- 창조와 섭리의 은혜 속에서, 세계화는 인류와 세계구원의 비전을 향한 분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sup>11)</sup>

이러한 성찰에 대해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대목도 있지만, 세계화 문제에 대한 공공신학의 특징과 문제의식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단초들을

11) 윌클, 368.

답아내고 있는 듯싶다. 이러한 요소들의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간추려 말하자면, 세계화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윤리적 가치를 일깨워주고 그것을 지향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는 점, 그것이 스택하우스의 요점인 셈이다. 핵심은 세계화에 대한 옹호 혹은 거부가 아니라, '윤리적 방향성'의 제시이다.

## 2. 신학의 세계화

'신학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Theology)란, 세계화에 대한 찬성 일변도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적극적 과제를 표현한다. 세계화를 신학의 이슈로 상정하고 세계화의 명암을 평가하는 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인권과 공정무역의 문제 등을 신학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글로벌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은 공공성에 대한 철학자들의 주장 혹은 공공철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과 함께 '글로벌' 윤리에 대한 관심도 다르지 않다. 철학자들이 보기에, 이데올로기로서의 글로벌리즘과 모노컬처럼 공공지식을 강조하면, 여러 지역들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다양성에 대한 공공지식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sup>12)</sup> 공공지식을 글로벌 공공철학이 되게 해야 한다는 뜻일 듯싶다.

하지만,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공공철학의 신학버전 쥘 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공철학자들의 관심, 즉 지역주의를 거부하고 전쟁과 평화, 정의, 인권, 복지, 빈곤, 과학기술, 환경, 안전보장, 문화재보호 등 지역 전체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수용하되,<sup>13)</sup> 보다 근원적인 지평이라 할 신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는 지평에서 세계화를 해석해야 한다.

본질상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세계화의 복합적인 동력에 의해, 하나의 새롭고도 보다 광범위한 공공영역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동력은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 신념의 (종종 의도하지 않은) 영향에 의해 추동되거나 정당화된다. 그리고 이것 보다 인류가 직면한 더 큰 공적(public) 이슈는 없다.<sup>14)</sup>

이것은 공공신학이 세계화 문제에 대한 신학이라는 도식적인 이해를 넘어서게 하는 중요한 단초이다. 스택하우스가 편집자로 활동한 『하나님과 세계화』(God and Globalization) 시리즈는 세계화 문제 그 자체에 함몰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학적 관심, 즉 세계화시대에 확장된 공공의장에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공동의 삶(common life)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sup>15)</sup> 공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섬김의 지평을 지역사회를 넘어 글로벌 섬김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강한 암시가 담겨있는 셈이다.

스택하우스가 자신의 공공신학을 개념적으로 정의한 대목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드러난다. 먼저, '공공'이란 형용사가 붙은 데에는 정치철학 혹은 정치신학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약간의 보완설명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몰트만이 해방신학 까지도 포함하여 정치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소 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스택하우스가 보기에, 정치철학은 종교와 신학을 사적인 영역으로 귀속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신학은 정치와 신학을 너무 직접적

12) 山脇直司,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성현창 옮김), (이학사, 2011), 199.

13) 윌름, 202.

14) Max L. Stackhouse, 윌름, 29.

15) Max L. Stackhouse, "What is Public Theology?: An American Christian View" (미간행 강연원고,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2007초청강연).

으로 정부의 정책에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sup>16)</sup> 두 가지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이다. ‘공공’이라는 표현은 종교가 사적이고 사적인 채로 있어야 한다는 사상과 대조되는 것인 동시에, 정치철학 및 정치신학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신학’이라는 표현에도 스택하우스 나름의 강조점이 들어 있다. 신학 안에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스택하우스의 신학개념에는 ‘변증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공공신학은 일종의 변증학이다.<sup>17)</sup> 교리적 변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각 사람의 영혼 및 삶의 제도 속에서 ‘진리의 근사치적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의 도덕적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개선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윤리적 변증 혹은 변증적 윤리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겠다.

이러한 뜻에서, 공공신학은 사회적 제도와 현상들의 근저에 놓인 신학적 의미를 규명하고 윤리적 오류를 교정하고 개혁하는 노력이다. 특별히, 기독교신앙이 지닌 공적 특성을 강조하고 공적 담론에의 적극적인 관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 공공신학은 사회의 여러 제도들 중에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에 저항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복원해야 하는지에 관한 윤리적 성찰을 전개해야 한다.<sup>18)</sup>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독교윤리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Christian ethics) 혹은 포괄적으로 ‘신학의 세계화’에 대한 요구라 할 수 있겠다. 공공신학이 말하는 요점은 세계화 그 자체가 아니라 세계화를 이끌어 갈 신학의 사명이다. 현대문명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구조와 내면적 안 내 체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을 책무가 신학에 부여되어 있

음을 강조한 것이다.<sup>19)</sup> 공공신학이 세계화 문제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일방적 찬성’ 혹은 ‘정죄적 거부’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화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에토스 문제에 관한 성찰이다. 스택하우스는 특히 세계화 문제와 기독교의 에토스의 회복 및 구현에 주목하기를 권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택하우스는 신학의 본질적 기능에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스택하우스가 보기에, 종교개혁을 즈음한 근대사에서 기독교가 각각의 영역 즉 가정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제도들에 적합한 에토스를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제도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책임 있는 주체가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마찬가지로, 세계화시대에서 신학은 에토스의 문제를 중심으로 신학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 혹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신학의 중심과제인 셈이다.

에토스의 변혁은 스택하우스의 문제의식을 상징하는 독창적인 과제이다. 특히, 도시의 에토스(urban ethos)에 대한 인식은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이 다루는 중요한 주제이다. 롱(Edward LeRoy Long, Jr)에 따르면, 스택하우스는 기독교윤리학의 방법론에서 제도나 법령 혹은 사회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제도중심의 접근방식(institutionalism)을 취하고 있다.<sup>20)</sup> 이것은 니버의 계승인 동시에 현대적 재론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듯싶다.

실제로, 『윤리와 도시의 에토스』(*Ethics and the Urban Ethos*)에서 스택하우스는 현대인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를 소재로 삼아 사회윤리의 특징을 부각시킨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도시 에토스의 인공성(the artifactuality of urban ethos)이 근현대사회의 결정적인 특징이

16) Max L. Stackhouse, 『세계화와 은총』, 164.

17) 윗글, 172.

18) 윗글, 143.

19) 윗글, 142.

20) Edward LeRoy Long, Jr., *A Survey of Recant Christian Eth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49; 52-56.

되었으며, 현대인에게 삶의 매트릭스가 되어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탱 해주고 있는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의 문제 및 미래에 대한 낙관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요소들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sup>21)</sup>

이러한 뜻에서, 스택하우스의 에토스 개념은 공공신학의 핵심개념 중 하나이다. 스택하우스는 종교가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에토스 형성에 있음을 자각하고 오늘의 지배적인 에토스를 분석하여 기독교적 에토스 형성을 위한 신학적, 성경적 개념을 동원한다.

에토스라는 것은 개별 공동체의 특성보다 넓은 개념으로 모든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방식, 사고의 틀이라 할 수 있다. 마치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의 정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스택하우스는 이러한 에토스 형성에 기독교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근대사회의 형성과 자본주의의 형성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스택하우스는 종교개혁자들이 근대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신학의 본래적 기능과 사명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과거에 기독교가 사회 제도들의 에토스 형성에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면 현재 사회 제도들의 사조들을 개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리주의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현대사회의 에토스에 대한 변화와 개혁이야말로 신학의 본래적 사명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셈이다.<sup>22)</sup>

중요한 것은, 삶의 매트릭스가 되어있는 세계화 문제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강력한 종교적 비전 혹은 에토스가 없다는 점을 절감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상징하는 세계화 문제를 상징으로 삼아 우리시대에 적실성있는 기독교사회윤리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스택하우스의 문제의식이었던 셈이다. 기독교윤리를 공공신학으로 규정하고 그 중심주제를 세계화문제로 상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대부분의 신학은 종교 제도들의 내면적 삶과 사상에만 집중한 탓에 글로벌 시민사회를 위한 에토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소홀했다. 이러한 때, 기독교윤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세계화에 따른 대규모 사회적 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동시에 기독교가 그 일에 적합한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sup>23)</sup>

이처럼 스택하우스가 세계화 문제에 대해 기독교의 적극적인 해석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신학 본연의 임무에 관한 중요한 인식이 담겨있다. 세계화로 상징되는 우리시대의 문제를 본질로부터 파악하고 해석하며 세계화에 내재된 위험요소들을 바르게 지적해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교정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뜻에서, 공공신학에는 세계화 문제에 대한 관심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간과할 수 있다. 공공신학은 글로벌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기독교사회윤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화'라고 하는 거대주체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 것 자체로도 충분한 의의를 평가 받아야 하겠지만,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이 염두에 둔 것이 세계화 그 자체를 넘어서 공적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기초하는 것 중 하나가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적 사회윤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신학의 학문적

21) Max L. Stackhouse, *Ethics and the Urban Ethos* (Boston: Beacon Press, 1972), 1-22, 189.

22)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84-91.

23) Max L. Stackhouse, 『세계화와 은총』, 75.

정체성과 지향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니버의 사회윤리가 미국의 산업화사회 및 미국주도의 국제정세에 관한 것이었다면, 스택하우스가 글로벌 맥락에 관심한 것은 기독교사회윤리의 지평확대라고 할 수 있다. 혹은 공공성 문제의 지평을 공공성 개념에 대한 사변적 논란으로부터 글로벌 정황이라는 구체적 현실의 문제로 전환시켜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스택하우스의 관점전환은 시의적절한 탁견이라고 해야 할 듯싶다. 스택하우스는 글로벌 변화(Global change)의 핵심요소들과 기독교윤리 사이의 관계설정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신앙이 시민사회가 지닌 삶의 다층적 다원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독교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4)</sup>

특히 현대적 의미의 기독교사회윤리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이 점차 축소되고 비정부기구, 즉 종교단체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의 힘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sup>25)</sup> 바로 이것이 니버의 시대에 '사회정의' 문제에 적용되었던 기독교사회윤리가 오늘의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재조명되고 확대, 심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암시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러한 뜻에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현대기독교윤리학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니버에게서 연원한 기독교사회윤리학이 글로벌 시대의 시민사회를 위한 윤리로 지평을 확장하고 기독교의 윤리적 책무를 새롭게 인식시켜준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학문적 갱신에 해당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 대한 인식을 새

롭게 해주고 공공성을 각성시켜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니버의 기독교사회윤리가 기독교현실주의로 나타났다면, 신앙의 사회화 극복을 주장하는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기독교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이 세계화를 문제시하지 않거나 혹은 찬성일변도의 태도를 보인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변해 준다.

그리고 변화된 시대의 특성으로서의 '세계화'에 담겨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시민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택하우스의 관점을 응용하여 해석하자면, 글로벌화된 현대사회에서 '시민성'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혹은 글로벌 맥락에 있는 오늘의 교회가 어떠한 윤리의식을 지녀야 하며 사회윤리의 지평에서 무엇에 관심해야 하는지를 암시해 주는 듯싶다.

글로벌 맥락과 시민성을 연계짓는 것은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이 세계화 현상 그 자체를 둘러싼 논의라기보다 세계화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인권, 정의, 환경 및 가정과 테크놀로지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러한 주제들이 시민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글로벌과 글로컬을 배경으로 하는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세계화 문제에 대한 성찰은 시민성의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

스택하우스가 삶의 매트릭스가 되어있는 세계화 문제에 관심했던 것을 고려하면,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류의 세계화를 두고 말한다면, 공공성 문제야말로 그들의 일방적인 제국주의적 세계화 문제에 견제와 균형을 말해줄 최적의 가치일 듯싶다. 그들에게 글로벌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가장 적합한 윤리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이다.

더구나, 공공성이 시민성과 연계될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요구는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볼 수

24) Max L. Stackhouse, 'An Introduction', Max L. Stackhouse, Tim Dearborn, and Scott Peath eds., *The Local Church in a Global Era: Reflections for a New Century: Reflections for a New Centu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0), 3.

25) Max L. Stackhouse,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Reforming Protestant Views", Max L. Stackhouse, Peter L. Berger, Dennis P. MacCann, and M. Douglas Meeks, eds.,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58.



있겠다. 시민성이 각성되고 시민사회로 이전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세계화 현상에 속한다는 뜻에서, 글로벌 시민사회에서의 기독교사회윤리의 책무와 과제를 다룬 공공신학의 문제의식은 의의가 크다.

이것은 시민사회에 나타나는 경향, 즉 종교를 비합리적인 사고의 범주 안에 밀어 넣는 부류 혹은 종교를 시민의 문제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시도들을 극복할 중요한 단초이다. 스택하우스가 사회과학적인 환원적 분석에 의해 대부분 소홀히 여겨지는 종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처럼 공공신학이 기독교신앙의 영향력을 복권시키고자 기독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신학의 중요성을 복권시키고 기독교신앙의 공적 관심을 고취하려는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스택하우스가 목적하는 것은 ‘기독교윤리의 세계화’이다.<sup>26)</sup> 다른 말로 하자면, ‘글로벌시대의 기독교윤리’(Christian Ethics in a Global Era)를 지향하고 있다.<sup>27)</sup>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삶의 매트릭스가 되어있는 세계화시대를 살아갈 기독교적 책임의 문제 혹은 공적 신앙의 회복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문제와 다원주의 문제, 사회정의, 그리고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글로벌 맥락에서 다룰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가장 대표적인 주제로 상정된 세계화 문제 그 자체는 중요한 성찰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기독교윤리의 본성과 책무에 대한 각성이다. 글로벌 시대를 위한 기독교사회윤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사람을 글로벌 시민사회의 참여자가 되게 하는 글로벌 시대에, 바람직한 에토스를 제공하고 윤리적 비전을 형성하는 노력에 기독교가 앞

장서야 함을 촉구한 것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인권을 위한 실천이 공공신학의 주된 관심사에 속한다는 것은 스택하우스의 관심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대변해 준다. 실제로, 그는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에 실천적으로 동참했고 인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권에 대한 문화비교적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스택하우스는 미국과 구 동독과 인도의 정치적 문화를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각각의 정치문화가 어떻게 인권이념을 논증하고 실현하였는지를 성찰한다. 스택하우스가 말하는 인권의 신학적 논거는 크게 두 가지 주장에 있다.<sup>28)</sup> 첫째, 신앙은 인간을 넘어선 형이상학적 실재가 존재함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인간의 자유와 합리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둘째, 모든 사회에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집단들은 초월적 규범과 힘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인간의 화해와 연대를 위해 애쓰고 있다. 교회가 인권을 위한 최고의 독립적 변호자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공적 신앙의 구현에 해당한다.

에토스 문제에서, 스택하우스의 기업윤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신학이란 믿는 자들만 위한 신학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사회를 위한 신학이고 또 신학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에토스에 대한 스택하우스의 관심은 지대하다. 막스 베버(Max Weber)에 관심한 스택하우스는 기독교가 경제 관계나 사회관계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sup>29)</sup>

적극적으로, 스택하우스는 기업을 인류를 위해 주신 기관으로 본다. 기업은 사명공동체로서 이윤보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존재한다는

26) Max L. Stackhouse, 『세계화와 은총』, 343.

27) 스택하우스 기념논문집 'Introduction'에 사용된 표현이다. Deirdre K. Hainsworth and Scott R. Peath, *Public Theology for a Global Society: Essays in honour of Max Stackhouse* (Grand Rapids: Eerdmans, 2010).

28) 이 부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라. 김형민, '공공신학의 과제로서의 인권',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북 코리아, 2007), 124-135.

29) Max Stackhouse, *Covenant and Commitments: Faith, Family and Economic Lif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7;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92.

것이다.<sup>30)</sup> 스택하우스가 보기에, 기업에 부여된 소명은 기술과 상품생산으로 인간 공동체의 복리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sup>31)</sup> 인류를 섬기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인류를 위한 '은혜의 대리인 또는 은혜의 표시'이고, '세속의 공회(worldly ecclesia)'이다.<sup>32)</sup> 따라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종교적, 도덕적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또한, 기업 경영인들은 단순히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인이 아니라, 자원을 인류를 위해 효과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윤을 만들면서 소명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3)</sup>

같은 맥락에서, 스택하우스는 가치들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에 있어 소명과 칭지기라는 개념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각 개인이나 조직은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sup>34)</sup> 말하자면, 각 개인이나 조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존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현실, 즉 하나님의 소명에 속해 있다.<sup>35)</sup>

스택하우스는 소명과 칭지기 개념을 공공의 관점에서 도덕의 용어로 새롭게 진술한다.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은 바로 이 공공의 선을 세우고 유지하는데 있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원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칭지기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30)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25.

31) 윗글, 133-34.

32) Max L. Stackhouse and Dennis McCann, "A Postcommunist Manifesto: Public Theology After the Collapse of Socialism", *The Christian Century* 108 (1991), 46.

33)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128.

34) 윗글, 25.

35) 윗글, 'Introduction', xiii.

스택하우스가 보기에, 기업이 처한 경쟁 구조와 조직이 갖는 생존 본능이 기업의 비전을 협소화 시키고 고립화시키는데 더 강하게 작용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은 이윤을 도덕적으로 추구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인류를 위해 부를 창조한 대가로서, 또 그 부를 창조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이윤을 생각하는 자세를 기업 경영인들이 터득해야 한다는 뜻이다.<sup>36)</sup>

물론, 글로벌 기업환경이 자연스럽게 신학적 지평이나 도덕적 차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황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택하우스는 창조와 타락 및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기초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글로벌 시민사회를 향한 기독교윤리의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언약과 직(職)의 갱신은 기독교윤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세계화의 정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왕, 제사장, 예언자로서의 삼중직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선교적 의의가 드러난다.

그런가 하면, '소명'에 대한 인식 또한 갱신되어야 한다. 전문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의미 안에 혹은 소명과 직업의 신학적 연계성이라는 뿌리를 망각한 오늘의 정황에서, 세계화의 에토스로 직업소명 의식이 새롭게 조명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방임적이고 이기적인 가치보다 책임적이고 관계적인 가치, 즉 돌봄, 섬김, 공공선, 책임적 자유를 강조한 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목적과 가치를 신학적 관점에서 제시함으로 기업의 에토스 변혁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학의 세계화 내지는 기독교윤리의 세계화가 추구하는 것은 인권과 사회정의 및 기업윤리에 관한 성찰을 글로벌 지평

36) 스택하우스의 기업윤리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신기형, '스택하우스 윤리사상의 특성과 공헌', *세계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 코리아, 2007), 82-95.

에서 재론하고 그것이 지니는 신학적 의의와 변혁의 과제를 감당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신학이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기보다 글로벌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에토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공공신학의 문제의식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 3. 세계화 성찰의 과제로서 교회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이 전혀 비판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세계화 문제 등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찬성론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비롯하여 여러 신학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밖에 여러 부분에서 스택하우스의 신학에 한계와 극복과제가 내재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스택하우스의 관점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인상은 누구라도 강하게 느낄 수 있을 듯싶다. 스택하우스 자신이 세계화의 명암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제안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밝은 면을 부각시키는 데로 흘러가버린 것 같다. 비판가들이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마치 자유주의 정치와 경제에 세례를 주는 듯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아 보일 정도이다.

더구나, 스택하우스가 비상황적(non-contextual) 신학으로서의 공공신학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초월적 규범을 결여한 또 다른 의미의 상황적 신학이 되어 버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커 보인다. 스택하우스 자신은 공공신학을 북미의 신보수주의 신학과 구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은 중요한 기여자가 되어버린 셈이다.<sup>37)</sup>

스택하우스가 미국적 배경과 이슈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치명적

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스택하우스가 자신의 공공신학이 어쩔 수 없는 '미국적 신학'(American theology)이고 인정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글로벌 시대의 기독교사회 윤리 혹은 기독교윤리의 세계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적 맥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균형론을 말하면서도 낙관론에 흐르게 되는 경우, 세계화에 대한 공공신학 본래의 문제의식이 희석되거나 없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이 문제를 스택하우스 친화적으로 설명하자면, 세계화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말했던 것에 대한 반항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삶의 매트릭스가 되어버린 글로벌 맥락에 대한 비판일변도의 관점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실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스택하우스가 세계화 문제를 균형있게 성찰하도록 이끌어 준 것 자체는 평가할만한 부분일 수 있겠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균형 속에 감춰진 지나친 낙관 그 자체가 아니다. 세계화의 신학 및 신학의 세계화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있다. '교회'의 실천적 관심사로 격상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스택하우스 자신이 세계화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계화 문제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평가들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는 과정에서 세계화에 대한 관심을 교회의 책무로 격상시키는 노력은 소홀했던 듯싶다.

사실, 세계화 문제 그 자체가 공공신학의 유일한 주제인 것은 아니다. 특히, 세계화시대에 교회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스택하우스에게 교회적 관심의 단초들이 발견되는 점에 주목하면서 각각의 단초들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듯싶다. 특히, 스택하우스가 기독교신앙을 '교회 안의 신앙공동체'에게만 한정지으려는 시도를 거부한다는 점을 보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앙을 개인

37) 장윤재, "북미 신보수주의 신학 탐구: 맥스 스택하우스의 공공의 신학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44집 (2009), 66-67.

의 경건이나 실존적 체험의 문제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물론, 신앙인의 실존적 고민을 다루는 신학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다. 기독교신앙의 사회적 본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가 공공성을 발휘하여 섬김을 실천할 예는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지역교회(local church)가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비롯한 지역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대외협력의 형태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개(個) 교회’라는 단어보다는 ‘지역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할 듯싶다. 공공신학은 기독교사회윤리를 글로벌 맥락에 확대적용한 것으로서, 교회가 실천해야 할 공적 신앙의 길잡이가 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지역교회 내지는 교단이 기독교시민운동에 참여하고 후원하는 일도 중요한 방법론일 수 있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내지는 도시공동체운동 역시 공공신학적 관심의 표현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fair trade)의 필요성을 비롯한 글로벌 이슈들에 각 나라의 교회들이 연대하여 대응하는 것 또한 공공신학의 주된 관심사에 해당한다. 공공신학이 글로벌 시대의 사회윤리를 위한 지역교회들 사이의 연대와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sup>38)</sup>

이러한 주제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는 공공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대안으로 제시해주는 ‘전위(前衛)라 할 수 있다.<sup>39)</sup> 특히, 교회는 ‘신학센터’(a theological center)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설교와 교육 및 성례전의 시행과 그 해석을 통해 신앙의 공적인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오늘날에 있어서 공적인 것이란 글로벌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요

38)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권한다. Max L. Stackhouse, Tim Dearborn, and Scott Peath, eds., *The Local Church in a Global Era*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2000).

39) 이상훈,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25집 (2013), 50.

세속주의 및 근본주의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sup>40)</sup> 나아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이외에 글로벌시장의 문제와 테크놀로지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주제들로 그 범위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sup>41)</sup>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공공신학의 교회는 ‘섬김의 모델’로 설명할 수 있을 듯싶다. 섬김의 모델은 신앙의 사사화를 방지하고 교회와 사회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정신을 담고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포함한 글로벌 시민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섬길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섬김의 모델에서 섬김의 신학적 근거와 목표를 망각하고 교회를 사회적 기능을 위한 조직이나 사회 개선을 위한 보조기관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섬김이’에서 찾되 선교와 영성을 사회봉사 및 정치적 행동의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회가 공공의 복리증진의 일방적 협조자 내지는 맹목적 추종자로 전락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가 공공성을 구현한다는 것이 국가와 사회정책을 위한 보조자로 전락해도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섬김의 모델로서의 교회의 공공성은 공공의 영역과 긴장관계에 있어야 한다. 교회는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시스템의 개선 및 공공의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이 기독교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강조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42)</sup>

40)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the Future of Democratic Society”, Dieter T. Hessel, ed., *Church's Public Role: Retrospect and Prospect* (Eugene: Wipf and Stock Pub., 1993), 80.

41) 윗글, 82.

42) 문시영, “공공신학의 교회, 교회윤리의 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집 (2013), 211-23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세계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때, 신학의 세계화를 거부할 수는 없을 듯싶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사명의 중심은 교회이어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세계화에 대한 접근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글로벌화된 세계에 대해 관심하고 '도덕적 행위자'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정의롭고 온정이 흐르며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만들게 하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sup>43)</sup> 스택하우스의 이러한 제안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는 시민적 담론에서 결코 외곽으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공공성의 책무를 구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시민성이 극대화된 현대 사회에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신학의 관심은 세계화 그 자체에 대한 일방적 정당화가 아닌 신학적 에토스의 변혁을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교회적 지평에서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공공신학이 글로벌시대의 기독교윤리가 관심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준 것이라면, 그 실천을 위한 교회적 관심에 있어서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교회윤리(ecclesial ethics)의 통찰을 참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싶다.<sup>44)</sup> 스택하우스가 간과하고 있는 요소를 보완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결보기에, 스택하우스의 관점과 하우어워스의 제안은 상극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스택하우스가 하우어워스에 대해 소중파적 퇴거의 위험을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관점은 도무지 어울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어워

스에 대한 관심을 제안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교회됨(being Church)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우어워스의 관점은 공공신학이 지니고 있는 공적 신앙의 가치가 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한 상호보완적 양립의 요소로 승화시킬 계기가 되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 III. 나오는 말

세계화 그 자체는 바른 평가와 대응이 필요한 주제일 듯싶다. 세계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며, 신학의 지평을 글로벌 시민사회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세계화를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일 수 있다. 더구나, 인권과 정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이슈들을 글로벌 지평에서 다루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신학의 세계화를 위해 에토스의 변혁을 제시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통해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신학적 접근의 중요성이 증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을 비롯한 공공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에토스가 공공의 진리로 회자되고 공공의 담론을 위한 주제로 상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화 문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지적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천적 관심을 담보할 근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화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교회를 윤리적 행위자로 상정해야 하며, 교회로 하여금 세계화시대의 윤리를 모색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게 해야 한다는, '윤리적 각성과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43) Max L. Stackhouse, "Globalization and Christian Ethics", William M. Sullivan and Will Kymlicka, eds, *The Globalization of Ethics*, 74.

44)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문시영, 『교회됨의 윤리』(서울: 북 코리아, 2011).

#### IV. 참고문헌

- 김형민, '공공신학의 과제로서의 인권',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문시영, "공공신학의 교회, 교회윤리의 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집 (2013).
- 신기형, '스택하우스 윤리사상의 특성과 공헌',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 코리아, 2007).
- 이상훈,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25집 (2013).
- 장윤재, "북미 신보수주의 신학 탐구: 맥스 스택하우스의 공공의 신학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44집 (2009).
- 山脇直司,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성현창 옮김), (서울: 이학사, 2011).
- Deirdre K. Hainsworth and Scott R. Peath, *Public Theology for a Global Society: Essays in honour of Max Stackhouse*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 2010).
- Dieter T. Hessel, ed., *Church's Public Role: Retrospect and Prospect* (Eugene: Wipf and Stock Pub., 1993).
- Edward LeRoy Long, Jr., *A Survey of Recent Christian Eth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Max L. Stackhouse, *Ethics and the Urban Ethos* (Boston: Beacon Press, 1972).
-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the Future of Democratic Society", Dieter T. Hessel, ed., *Church's Public Role: Retrospect and*

*Prospect* (Eugene: Wipf and Stock Pub., 1993).

- Max L. Stackhouse, Peter L. Berger, Dennis P. MacCann, and M. Douglas Meeks, eds.,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 Max Stackhouse, *Covenant and Commitments: Faith, Family and Economic Lif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Max L. Stackhouse, Tim Dearborn, and Scott Peath eds, *The Local Church in a Global Era: Reflections for a New Century: Reflections for a New Centu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0).
- Max L. Stackhouse, "What is Public Theology? : An American Christian View", (미간행 강연원고,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2007 초청강연).
- Max L. Stackhouse, 'Globalization and Christian Ethics', William M. Sullivan and Will Kymlicka, eds, *The Globalization of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Max L. Stackhouse, Globalization and Grace, 『세계화와 은총: 글로벌 시대의 공공신학』 (이상훈 옮김), (서울: 북코리아, 2013).

#### 검색어

세계화의 신학  
또 다른 타락  
섭리적 은혜  
신학의 세계화  
공공신학  
스택하우스

# Theology of Globalization, the Globalization of Theology, and the Church

Moon, Si-Young, Ph.D.  
Professor of Christian Ethics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balanced reflection on the issue of 'globalization' in a context. In fact, the majority of scholars blame globalization as a seriously troubled issue which harms the whole world. It is also true that globalization is the matrix of our tim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seeks to present a balanced reflection on globalization, based on the public theology of M. Stackhouse as follows:

(1) Theology of globalization: It needs to be balanced between globalization as 'another Fall' and 'providential grace'. According to Stackhouse, the most important question on this topic is not whether globalization is acceptable or not, but 'How can Christianity contribute to establish the publicness of the globalization?'

(2) The globalization of theology: Stackhouse urges that theology has to be concerned about the issues of human rights, fair trade, technology, and so on. In other words, the globalization of Christian ethics is urgently needed. Moreover, providing moral guides for the globalized world is a very important task of theology in our times.

Of course, there are some critics of Stackhouse's view. For example, some say that Stackhouse has a tendency to evaluate globalization positively. Others think although he finally arrived at a contextual

theology, nevertheless he himself maintained the importance of a non-contextual view. In my opinion, Stackhouse has little concern about the ecclesiastical horizon. It is never to be ignored that the church is very important in the realization of moral tasks in the global era.

## Keywords

theology of the globalization  
another Fall  
providential grace  
the globalization of theology  
public theology  
M. Stackhouse

- 투고일: 2014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06일